

◀기쁜 우리 날들▶ 나는 이렇게 울었습니다

박노해



그토록 애써온 일들이 잘 안될 때
이렇게 의로운 일이 잘 안될 때
나는 이렇게 울었습니다.

"뜻인가"

길게 보면 다 하늘이 하시는 일인데
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시려는 건 아닌가
하늘 일을 마치 내 것인 양 나서서
내 뜻과 욕심이 참뜻을 가려서인가

"능인가"

결국은 실력만큼 준비만큼 이루어지는 것인데
현실 변화를 바로 보지 못하고
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해
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시작한 건 아닌가
처절한 공부와 정진이 아직 모자란 건 아닌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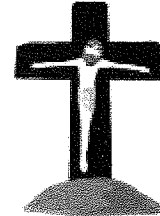
"때인가"

흙 속의 씨알도
싹이 트고 익어가고 지는 때가 있듯이
모든 것은 인연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
세상 흐름에 내 율음을
맞추어 내지 못한 건 아닌가
내가 너무 일러 더 치열하게
기다려야 할 때는 아닌가

쓰라린 패배 속에서 눈물 속에서
나는 나에게 이렇게 울었습니다.

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	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(빌4:13)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9권 1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7년 1월 7일
☎ 369-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용서는 미움을 이긴다



광주 모 교회 신 모 장로(62)의 아들은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.
그런 아들이 96년 제대를 앞두고 사격 연습 중에 총에 맞았습니다.
총알이 아들의 복부를 관통했던 것입니다. 단순사고로 보기
힘든 사고였습니다. 가해자는 아들 부대 중사였습니다. 부대에서
도 고의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.
수사진행 상황을 들은 신 장로는 휴가 중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
다.

"제가 사격 1등이에요. 오죽했으면 부대 중사가 사격 시험에서 한번만 양보
해 달라 부탁했겠어요."

진급을 앞둔 중사의 부탁이었지만 거절했다는 아들의 자랑이었다.
'그럼 그것 때문에...'

비장 등 장기를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는 아들 곁에서 신 장로는 기도뿐 더
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. 다행히 결과가 좋아 아들은 생명을 되
찾게 됐습니다.

이때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본격 수사키로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
병상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.

"안돼요. 그분을 용서해주세요."

중사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설사 고의로 쏘다 해도 용서해주
자고 병상에서의 아들이 말했습니다.

아들의 말에 신 장로는 부대를 찾아가 더 이상 사고에 대해 조사되는 것을
원치 않는다고 청원했습니다. 관계자들은 뜻은 가상하지만 부대 내 일이라며
냉담했습니다.

신 장로는 일선 부대부터 군단 관계자까지 곳곳을 방문, 뜻을 전했습니다.
점차 관계자들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.

결국 사건은 중사가 제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.

지금 중사는 회사에 다니며 신 장로를 부친처럼 따르고 있습니다.
용서를 통해 신 장로는 아들 하나를 더 얻은 것이었습니다.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기도없는 7 일은
우리를
연약하게 만듭니다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칭찬은 큰 소리로 하고
후회는 작은 소리로 하세요.
그것이 반대가 되어서
세상이 어지럽습니다

◀그땐 그랬지 ▶ 영화 라스트 콘서트

슬럼프에 빠진 40대의 피아니스트 리처드는 청순한 17세 소녀
스텔라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성공적인 재기 무대를 갖습니다.
그 무대에서 '스텔라에게 바치는 노래'가 연주되지만 백혈
병에 걸린 스틸라가 리처드가 선물한 흰 드레스를 입고 객석
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도 영화 주제
가속의 스틸라의 독백 "Always be with you, I love you
Richard,"의 들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은 그만큼 지고한 사랑의
여운 때문인가 봅니다. 그녀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 한 방울
이 있는 단순한 포스터지만 맑고 투명한 스틸라의 그 모습에
정신이 혼미 했던 시절이 추억으로 있음에 행복합니다



주일 예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광송 Glory	Calvary	다 같이
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도자
*찬송 Hymn	9장	다 같이
*성서교독 Response Reading	167(신년예배)	
*신앙고백 Apostle's Creed	사도신경	
교회소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도자
찬송 Hymn	219장	다 같이
기도 Pray		정덕수 장로
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베드로전서 2:9-10	인도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교 Sermon	이민교회입니까? 우리교회입니까?	김성국 목사
찬송 Hymn	246장	다 같이
헌금기도 Offering Pray		인도자
응답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이
축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“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건축을 위하여
3여선교회 회원들이 작은 정성을 바칩니다.”
-성전건축헌금 드린 3여선교회의 헌금봉투에서-

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:\$1,500(24일)+\$3,340(31)+한화330,000	총액:\$287,094
--	--------------

◆1월 예배위원◆

일자	기도	차량	안내
31	장현중	박일영	본당: 김순자, 윤주야
7	정덕수	백제성	현관: 최재학, 김교섭
14	최재학	양경배	새교우: 이광희, 이근평
21	김교섭	이광희	장유진
28	김순자	이근평	

◆1월의 교회력◆

주 일	예배와 모임
7	신년주일 신년새벽기도회(2-5)
14	Holy Sepulchre farewell 주일
21	새성전입당 제직결단예배(24)
28	수요예배 시작(31)

『교회생활』 2007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	『교회등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: 아동, 학생: 12:30분	수요예배: 7:30 pm
새벽기도회: 금 5:55	청년부: 토 오후 5시

- 교우소식
<등록> 김정자 권사, 백수진 성도 ☎ 845-3422. 8/11 Don Croot St. Morningside.
- 2007년 교회표어 “예수님 안에 담이 있습니다” (빌4:13)
*우리 삶의 해결이 주님께 있기에 기도응답이 많은 한 해가 되기 위해 더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.
- 다음주일(예고): “Holy Sepulchre farewell 주일”
*정든 예배당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 하나 흘려 놓고 그 열매만 잘 닦아 갖고 가려 준비합니다.
*<교회이전위원장> 박상욱 집사
- 2007년 봉사자
*성가대, 주차, 교사, 결식자봉사, 주방봉사에 교우들의 자원하는 지원을 기다립니다.
- 수요예배가 방학중입니다.
*선뜻 이웃교회 참석하려는 마음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 기회가 아니면 어렵기에 용기를 내 보십시오.

◀착한 시인들▶ 여름밤

정태준

모기불
속향기 그윽한 여름밤
별똥별 떨어지는 밤
갓 찌내온 옥수수 내음 내음
이야기꽃
피어 오르는 밤
뒤편 아래
원종일 개울 뒤편
피라미데 물고
달빛 아래
손뼉 치며 반딧불 쫓다가
별들만 가득
엄마
무릎 베고
소르르 잠드는 밤

화단의 장미 흔들리는 바람
지나갈 때면 한기 느끼는 이
상한 여름입니다.
호느적거리는 대지를 만들만큼
왜 그리도 무더위가 머리
위에 머물렀는지를 여름 과
실이 튼실하게 익고 나서야
비로소 알아 차렸습니다.
여름은 풍성한 대지를 품고
자기 뒤로 오고 있는 계절을
기다리게 했고 없는 자도 따
스하게 살아가도록 언제나
자비로웠습니다.
거기다가 우리들의 마음속에
언제나 고향 잊지 말라는 어
린 날의 추억 하나씩을 더
안겨 주었습니다.